

하비에르 기념 성당

하비에르 기념 성당은 16 세기 중엽에 서일본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던 예수회의 선교사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1506~1552)에 관한 역사적인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1952 년에 지어진 당시의 건물은 1991 년에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1998 년에 재건된 것입니다. 심플한 라인과 삼각형 모양의 현대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1 층은 하비에르의 생애와 일본의 그리스도교 발전을 테마로 전시하는 자료 전시관이 있으며, 2 층은 예배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는 크기의 모던한 스테인드글라스가 대담한 디자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1549 년, 당시 포르투갈령이었던 인도에서 지금의 가고시마 현에 도착했습니다. 하비에르는 규슈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에게 가신과 신하 모두 가톨릭으로 개종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1551 년에는 지금의 야마구치 시에 두 달간 머물면서 당시 지역의 영주였던 오우치 요시타카(1507~1551)와 면담을 나누었습니다. 요시타카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 영지 내에서의 선교를 허가하며 사원을 내어 주었는데, 하비에르는 그 사원을 일본 최초의 그리스도교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야마구치에 머문 두 달 동안, 약 500 명에게 세례를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 전시관에서는 회화, 지도, 기타 역사 문헌을 통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생애를 소개하며, 하비에르의 일본 도착과 일본 체재 중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묘사한 금박 병풍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교가 16 세기에 일본에 들어온 이후부터 17~19 세기의 신앙 금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그리스도교 발전에 대해서도 해설합니다. 잠복 기리시탄의 모습이 그려진 불교식 석등과 같은 공예품을 통해 그리스도교가 비합법화된 상황에서도 고립된 커뮤니티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이어온 잠복 기리시탄의 생활상 일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료 전시관의 입장은 유료이며, 예배가 없는 시간에는 예배당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